

제일모직, RFID로 유통코스트 절감

전자태그 도입 매출 증가에 비용 감소 ... 금호타이어와 함께 표창도

제일모직이 매장에 전자태그를 매장에 도입함으로써 매출이 2억원 가량 증가하고 비용도 1억5000만원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월2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RFID/USN 산업화대상 시상식>에서 제일모직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은 전자칩에 정보를 내장하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감지한 정보를 컴퓨터로 전달할 수 있는 센서들로 연결망을 구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RFID를 이용하면 다양한 제품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태그를 이용해 제품의 종류 및 디자인, 컬러 등의 세부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2006년부터 RFID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제품 수송·배송시간이 하루 15시간에서 3시간으로 대폭 단축돼 물류 생산성을 5배 가량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타이어 제조공정에 이용되는 운반구와 파렛트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생산품질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금호타이어와 태그 안테나와 칩을 레이저로 접착하는 기술을 국내화한 젯텍도 지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RFID 기술의 확산 속도가 더디지만 기업혁신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2>